

수업전략 Tip(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짝 활동 전략)

[Tips]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짝활동 전략

- 교수자 중심의 설명식 수업에서는 쉽게 학생들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멍때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역동적인 수업을 위해 중요 수업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짝활동이 효과적임
- 짝활동은 4명 정도의 모둠 전략과는 달리 모든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구조로 모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전략임
-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의식 수업에서 듣기만 하는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기억이 이루어진다고 함
- 또한 학생들은 친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 이해가 되고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서 교수자의 설명보다 쉽게 이해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함
- 무엇보다도 새로운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인지적 부하과정에서 잠시 쉬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서 효과적임

❖ 교수자의 발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활동

아래의 전략들은 학생들에게 발문을 했을 때 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 수업에서 전체 학생들의 토론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는 전략임

○ 사고공유 짝 학습(Thinking-pair-share)

- 전체 학생에게 교수자가 발문을 하고 각자 생각한 답을 짝과 비교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정교화하는 전략
- 이 때 요구되는 답은 하나 이상의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발문에 해당함. 예를 들어 ‘러시아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?’ ‘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사회문화적 배경은?’ 등
- 모든 학생들에게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적극적인 인지적 사고 유도
- 모둠 학습이 갖는 무임승차(모둠 내에서 공부하지 않고 묻어가는 효과) 방지

- 강의식 수업에서 쉽게 적용

☞ 활동 전략

- ✓ 교수자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발문 선정
 - ◆ 특정 원리나 법칙에 대해 설명한 후 다른 사례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
 - ◆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교하여 개념이나 원리를 상대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는 내용
 - ◆ 내용이 다소 어려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교화가 필요한 내용 등
- ✓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문 실시
- ✓ 일정 시간을 주고 개개 학습자들이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제공(발문의 내용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)
- ✓ 옆의 짝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
- ✓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적 찾아보기
- ✓ 교수자는 짝 활동이 끝나면 몇 몇 짝의 발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전체 학생들과 논의 실시하고 피드백 제공
- ✓ 시간에 따라 발표할 짝의 수를 선정하되 최소한 2팀 이상은 발표할 기회제공하고 다음 활동에서는 다른 다양한 팀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- ☑ 사고 진술 공유 짝 학습(Think-write-pair-share): 위 전략이 변형된 것으로 답을 먼저 적은 후 짝과 공유하게 함으로써 생각하지 않고 짝의 의견을 쫓아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

○ 짝 점검(Pair check)

- 사고공유 짝 학습과의 차이점은 발문의 내용이 하나의 정답이 있을 때 각 학생들이 교수자의 발문에 대한 답을 한 후 함께 서로의 답을 확인하고 누구의 답이 맞는지 논의하도록 함

○ 짝 합병(Combining pairs)

- 짝 활동을 한 후 한 주변의 다른 짝과 함께 4명이 함께 답을 공유하고

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

○ 팀 동료 자문(Teammates consult)

- 학생들이 교수자의 발문에 대해 답을 만들기 전에 짝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각자 개인적 답을 찾는 활동을 의미함

❖ **수업내용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질문거리를 찾아 함께 논의하는 활동**

○ 미니 하부루타 방식

- 미니 하부루타란 교수님의 수업에 대해 두명의 짝이 일정 시간동안 자신들이 이해가 가지 않은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거리를 찾아 서로에게 질문하고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활동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을 의미함
- 서로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돕고 서로 질문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
- 치열한 질문과 답을 하는 미니 하부루타를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학생들은 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수업을 듣게 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동료의 질문에 대비해 스스로 발문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 능동적 학습을 촉진함

☞ 미니 하브루타 활동

- ✓ 교수 중심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정 시간을 배정하여 실시(75분 수업의 경우 50분 교수자의 수업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시.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5분 정도의 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음)
- ✓ 옆에 앉은 두 명을 짝으로 한 팀 구성
- ✓ 서로 가위 바위 보를 하게 하여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여 먼저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을 할 것인지 결정
- ✓ 질문을 먼저 하는 학생은 수업내용 중 궁금한 것으로 짝에게 물어보고 다른 짝은 그 질문에 대해 아는 정도까지 답을 하도록 함
- ✓ 질문을 할 때에는 이해가 갈 때까지 치열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도록 요구
- ✓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꾸어 답을 한 친구가 질문을 하고 질문했던 친구가 답을 하는 동일한 활동을 실시
- ✓ 짝 활동이 끝나고 나면 짝 끼리의 활동을 통해서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전체 학급에 묻게 하고 교수자는 답을 해주기 보다 다른 짝들 중 답을 할 수 있는 짝에게 답의 기회를 제공(시간적 여유에 따라 교수자가 바로 답을 해 줄 수 있음)
- ✓ 전체 활동이 끝나면 좋은 질문을 했거나 답을 잘한 짝이나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마무리